

Marshall과 Samuelson · Mankiw

변 형 윤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A. Marshall(1842~1924)은 경제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경제학은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人間에 관한 연구이다. 그것은 개인적 및 사회적인 행동 중 복지의 물질적 요건의 획득과 그 사용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 있는 측면을 다루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학은 일면에 있어서는 富의 연구이지만 다른, 보다 중요한 측면에 있어서는 인간의 연구의 일부이다. 인간의 성격은 종교적 신념의 영향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영향보다도 일상의 일과 그것에 의해서 획득되는 물질적 수입에 의해서 형성되어 온 바가 크기 때문이며, 또 경제적인 힘은 종교적인 그것과 함께 세계의 역사를 형성해 온 두 가지 주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Principles of Economics, 1890, p.1).

그리고 그에 의하면 “경제학자가 다루는 것은 주로 인간생활의 한 측면에 불과하지만, 허구적인 인간의 것은 아니고 현실의 인간의 생활에 관한 것이다”(ibid., p.22)

그러나 P. A. Samuelson(1915~2009)은 1948년에 경제학입문서인 『경제학』(Economics: Introductory Analysis)을 출간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연구의 일부’라는 Marshall의 정의의 후반 부분을 제외하고 거시적 소득분석과 미시적 가격분석을 신고전학파의 사조의 흐름에 따라서 종합하려고 한 이른바 <新古典派 綜合>을 시도하고 있는 책이며, 수많은 입문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리고 그의 시도는 그 이후의 주류경제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책은 제11판(1980)까지는 단독으로, 제12판(1985) 부터는 W. D. Nordhaus와 공저로 제19판(2008)까지 출판되었는데 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Samuelson과는 달리 N. G. Mankiw(1958~)는 Marshall의 정의 후반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 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19세기의 위대한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은 『경제학 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마셜이 살던 시대 이래로 경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 왔지만, 그가 내린 경제학의 정의는 『경제학 원리』 교과서 초판이 출판된 1890년이나 오늘날이나 변함없이 옳은 것이다”(Preface: To The Student, Principles of Economics, 1999)

그리고 13부 중 제6부 ‘노동시장의 경제학’의 3개 章(제18, 19, 20장)을 소득분배 문제에 할애하고 있으며, 특히 제20장에서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 빈곤 문제, 분배의 불평등 문제 등이 심각함을 감안할 때 Marshall의 ‘경제학은 인간의 연구의 일부’라는 정의 부분에 관심을 돌릴 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경제학자가 다루는 것은 허구적인 인간의 것이 아니고 현실의 인간의 생활에 관한 것이다”라는 Marshall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